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項目體裁와 '題詠'에 대한 考察

A Study on Item Systems of Shinjung Tongguk Yoji Sunnam and Cheyong

정 의 성(Uee-Sung Jung) *

목 차

- | | |
|-----------------|---------------|
| 1. 序言 | 3. 題詠에 대한 考察 |
| 2. 項目의 體裁와 主題 | 3. 1 詩文의 登載狀況 |
| 2. 1 項目의 體裁 | 3. 2 詩文의 內容分析 |
| 2. 2 項目의 內容과 主題 | 4. 結言 |

초 록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項目體裁는 모두 2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 主題는 行政 軍事 地理이다. 이는 본서가 범상한 地理書라기 보다는 국가의 行政指針書나 軍事要務를 위한 便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포괄적인 情報資料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특히 본서는 여타 地理志가 구비치 못한 '題詠' 項目을 설정하여 인문적인 면을 보강하므로써 地理志의 격조를 한층 드높인 자료로 평가된다. 題詠의 詩文은 충청 경상 전라도에 많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三南地方에 게재된 것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들 詩文의 詠嘆對象은 山 江 城 陵墓 등이며 주로 자연지리적 현상이나 기념비적인 史蹟들이다.

ABSTRACT

The content systems of Shinjung Tongguk Yoji Sunnam(新增東國輿地勝覽, A Korean Geography Published in Choson Dynasty) consist of 26 items and the main subject comprises administration, military and geography. This book does not suggest a simple geography but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as an administrative guide book of a nation or a military operation manual. In particular, this book is made much of as a more valuable material in elevating the quality of the geographic book since it contained a 'Cheyong(題詠)' item and reinforced the fields of humanities which could not be found out in other geography. The verses of Cheyong are recorded in the documents in the Chungchong, Kyungsang and Chulla Provinces, and these recorded verses in the tree provinces are more than half of the whole country's. The objects of recitation in the these verses are related to such natural phenomena and historic relics as the mountains, the rivers, the walls and the royal tombs.

1. 序 言

朝鮮 前期에 편찬된 地理志는 그 이전의 지리지들과는 달리 국가가 주도하여 펴낸 官撰地理志라는 점이다. 이 官撰地理志는 世宗代에 이르러 편찬되기 시작하였는데 史書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리서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그 내용이 地名의 변천이나 山川등의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군사 역사 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매우 상세하고 폭넓은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록하였다는 점과 지속적인 증보를 통해서 변화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55卷)은 中宗 26年(1531) 6월에 癸丑字로 간행되었는데 그 初稿本인 東國輿地勝覽(50卷)이 완성된지 꼭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장기간에 걸쳐 수정 증보가 계속되어 項目의 體裁와 內容이 더욱 풍부하게 되었고 아울러 다양한 주제를 망라함으로써 이 분야의 독보적인 자료가 되었다. 특히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여타의 同種書와 비교해 볼 때 그 내용면에서 인문 사회적인 주제의 정보를 강화하였을 뿐만아니라 '題詠' 항목을 설정하여 많은 詩文을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朝鮮 前期의 사회·문화사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긴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고는 이처럼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그 항목의 내용과 체재를 살펴보고 문헌정보학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주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지리지에서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는 '題詠' 항목의 각 지방별 詩文 登載狀況과 內容을 고찰하여 본서가 접하고 있는 문헌적인 위치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項目의 體裁와 主題

2.1 項目의 體裁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구성은 京畿 이하 八道別로 되어 있지만 京都 漢城府 開城府의 세곳은 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반 郡縣은 곳에 따라 다르며 최다 26개의 항목이 설정되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수록 순서와 내용은 建置沿革 屬縣 鎭管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關防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倉庫 橋梁 佛宇 祠廟 陵墓 古跡 名宦 人物 題詠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본서의 체제는 宋나라 祝穆이 高麗 高宗 26年(1239)에 간행한 方輿勝覽을 참작하였으며, 朝鮮 世祖 9年(1463)에 명나라 李賢 등이 편찬한 大明一統志를 본받았다고 하지만¹⁾ 상기의 두 서책에 전혀 없는 항목을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姓氏 項目이 그것이다. 이 항목이 기술되어 있음은 중국이나 일본의 地理志와 비교해 볼 때 본서의

두드러진 특색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大明一統志의 맨 끝 항목인 仙釋은 본서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당대의 위정자들이나 편찬자들의 시대적 사상이 仙釋에 무관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²⁾

위에서 언급한 京都 등 3 特別地와 327개 郡縣의 항목내용을 보면 다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京都를 보면 國都城郭 宮闕 壇廟 苑有文職公署 武職公署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漢城府는 建置沿革 郡名 姓氏 形勝 風俗 山川 烽燧 宮室 樓亭 驛院 橋梁 市街 佛宇 祠廟 古跡 名宦 人物 題詠의 18항목이다. 한편 開城府는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城郭 烽燧 宮室 學校 驛院 橋梁 部坊 公

廨 佛宇 祠廟 陵寢 古跡 名宦 人物 題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漢城府와 開城府의 내용은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는데, 漢城府에서는 開城府에 없는 樓亭과 市街가 있는 대신에 開城府에는 城郭 學校 部坊 公廨陵寢이 설정되어 모두 21개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여타의 일반 군현의 경우에 있어서도 곳에 따라 상이하며 대체로 20개 내외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 明나라의 대표적인 地誌인 大明一統志와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宋·明의 方輿勝覽 大明一統志와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을 상호비교해 보면 아래 <表 1>과 같다.

<表 1> 方輿勝覽·大明一統志·東國輿地勝覽·新增東國輿地勝覽의 項目體裁 相互比較

書名	方輿勝覽	大明一統志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項目名	郡名 風俗 形勝	沿革 郡名 形勝	沿革 風俗 形勝	沿革 屬縣 鎮管
	館驛 土產 山川	風俗 山川 土產	名山 大川 高城	官員 郡名 姓氏
	學館 堂院 亭臺	公署 學校 書院	大峇 廟社 宮室	風俗 形勝 山川
	樓閣 寺觀 古跡	宮室 關梁 寺觀	五部 諸司 陵寢	土產 城郭 關防
		祠廟 陵墓 古跡	祀壇 學校 旌門	烽燧 宮室 樓亭
		名宦 流寓 人物	寺刹 祠墓 土產	學校 驛院 倉庫
		烈女 仙釋	倉庫 樓台 院宇	橋梁 佛宇 祠廟
			關防 站驛 人物	陵墓(陵寢) 古跡
			名宦 題詠	名宦 人物 題詠

위의 표는 4 地誌의 항목내용을 수록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서 方輿勝覽의 항목을 보면 郡名을 먼저 적고 맨

나중에 寺觀과 古跡을 기술하여 역사지리학의 일반적 속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 2세기가 훨씬 경과한 후에

1) 李成茂. 1983. "全國地理志解題". 韓國地理志叢書 1. 서울 : 亞細亞文化社. pp. 6-10.
 2) 盧道陽. 1993. "新增東國輿地勝覽解題". 韓國의名著 3. 서울 : 玄岩社. pp. 86-92.

편찬된 大明一統志에는 沿革과 公署 등의 서술을 통해 王朝의 내력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歷代 君王의 陵墓를 부각시켜 왕위를 고양하고 名宦과 人物 烈女를 드러내어 유교적 통치기반을 다지며³⁾ 국가의 治理資料로서의 구색을 갖추고자 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은 大明一統志의 편찬 취지와 같은 인식하에서 작성된 것이며 그 凡例는 한결같이 大明一統志를 본받아서⁴⁾ 유사성이 많고 특히 王化를 歌頌하는 題詠으로 끝을 맺고 있어서 그 문헌적 가치를 가중시키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은 상기의 項目比較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沿革을 위시하여 題詠에 이르기까지 모두 26개이다. 이는 그 初稿本인 東國輿地勝覽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골격에 있어서도 큰 변함이 없다. 初稿本은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기술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단지 그 체제만을 徐居正의 序文에서 살필 수 있을 따름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東國輿地勝覽과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그 수는 똑같이 26개이며 이 중에서 명칭이 동일한 것은 11개로서 沿革 風俗 形勝 土産 關防 宮室 學校 倉庫 名宦 人物 題詠이다. 同類의 항목으로서 유사하게 개명된 것은 初稿本의 樓臺 寺刹이 新增本에서는 樓亭 佛宇로 바뀌었으며 陵寢(開城)과 陵墓(廣州)는 혼용되어 있다. 또 두 항목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도

있으니 즉 초고본의 名山 大川은 山川으로, 高城 大砦가 城郭으로, 또 站驛 院宇가 驛院으로, 廟社와 祠墓는 祠廟로 변경되었다. 이밖에도 신증본에는 초고본 東國輿地勝覽에 없었던 郡名과 烽燧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世宗朝 이후 지방 행정체제가 점차 확립됨에 따라 그 행정 군사상의 비중이 컸음에서 취해진 조치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간간히 지방에 따라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유사하거나 예외적인 항목을 두고 있다. 예컨대 市街(漢城), 樓館(驪州 江華), 塚墓(利川 金浦), 宮殿(楊州), 祠壇(江華), 院宇(麻田), 亭榭(德山), 寓居(牙山), 流寓(興海) 등이 그것이며 人物 항목에 孝子·烈女(安東)를 포함시킨 곳도 있다.

2. 2 項目의 內容과 主題

新增東國輿地勝覽은 朝鮮朝의 대표적인 官撰地理志로서 조선왕조 지배의 상징으로서 편간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行政·軍事 등 실용적인 내용을 매우 치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人物이나 陵墓·古跡 등 문화에 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며 전체적으로 많은 詩文이 침재되어 있어서 당시 지배층들의 국가의식 내지는 역사의식이 널리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을 주제별로 10구분하여 類集해 봄으로서 이의 문헌적인

3) 李泰鎮, 1979. "東國輿地勝覽 編纂의 歷史의 性格". 震檀學報 46·47合併號, pp. 252-258.

4) 新增東國輿地勝覽 跋文. 當其凡例 一以大明一統志爲法.

〈表 2〉 新增東國輿地勝覽의 主題別 共通項目

主題	項 目 名	項目數
儒·佛教	祠廟 佛宇	2
行 政	屬縣 官員 郡名 驛院	4
經 濟	土產 倉庫	2
社 會	姓氏 風俗	2
教 育	學校	1
軍 事	城郭 鎮管 關防 烽燧	4
建 築	宮室 樓亭 橋梁	3
文 學	題詠	1
歷 史	建置 沿革 名宦 人物	3
地 理	形勝 山川 陵墓 古跡	4
計		26

특징을 더욱 명백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위 표에서 보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여러 항목 가운데서 그 수가 많은 주제는 行政 軍事 地理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주제의 항목수는 12개로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行政主題의 항목을 보면 먼저 屬縣에는 府 牧 郡으로부터의 방위와 거리가 기록되어 있고, 官員은 해당지역의 官職名과 그 數 및 品階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각 지역과 주요도로에는 驛院을 두고 역시 방위와 거리를 기술하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과 통신망을 확연히 알 수 있다.

軍事主題의 항목은 鎮管 城郭 關防 烽燧로서, 이에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軍鎮의 관할 郡縣名과 그 수를 기재하였고 주요한 山串의 봉화대와 관문의 防護所 그리고 기타 營 鎮 戍의 명칭과 위치 등이

서술 되어 있어서 왜구와 야인에 대한 방비가 당시의 초급한 문제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地理主題의 항목은 陵墓 古跡 形勝 山川의 명칭과 위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리서로서의 면모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

결국 본서는 많은 수의 행정적 항목을 冒頭에 설정하여 나라의 정책수행을 위한 行政指針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군사관계 항목을 통해서 국가 민족의 자위는 물론 외세의 위해를 지키기 위한 案內 書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또 경제나 건축 등 실제적인 면과 역사 지리적인 면에도 역점을 두어 백성의 自尊意識이나 지역민의 긍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題詠을 설정하여 그 지방 출신의 유명 文士나 地方官들이 지은 시문이나 고을의 경승지에 대한 문학적 표현들

을 첨재하여 정신적인 유산을 기리고자 하였다.

3. 題詠에 대한 考察

3.1 詩文의 登載狀況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마지막 項目으로 題詠을 설정하여 그 지방의 역사적 사건, 樓亭, 絶景 등에 관한 詩文을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각 지방의 지리적 事象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으로서 당시의 官撰地理志가 지리적인 현상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국민 敎化的인 德目を 마련하는 일에도 크게 배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題詠 항목에 등재된 작품의 상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당대의 지식인들이 남긴 자국 내지는 지방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세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地理志의 체재에 문화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은 南宋代에 方志가 활발하게 편찬되었던 시기부터 였다.⁵⁾ 地理志에 실용적인 항목 이외에 詩詞 등이 편입되게 된 것도 이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기록에서 보듯, 北宋 樂史의 저술인 “太平寰宇記는 대개 山海經의 體例를 이용하여 人物을 증가하고 藝文을 짝지웠으

며 ... 元明 이후로는 서로 이 體例를 따르게 되었다.”⁶⁾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東國輿地勝覽에도 그 맥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또 다음 기록에서 보듯, 太平寰宇記의 序文에

“[太平寰宇記에서] 地理 이외에 姓氏·人物·風俗 등 數門을 편입시키기에 이르렀고, 또 人物에서는 또 官爵·詩詞·雜事를 상세하게 함으로서 마침내 祝穆 등이 편찬한 方輿勝覽에서는 오히려 建置沿革을 간략히 하고, 人物·瑣事는 반드시 남기지 않고 登載하였다. 이러한 것은 실로 다 이 [太平寰宇記]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것이 그 단점이다.”⁷⁾

라고 한 것을 보면, 宋나라 이후에는 비로소 政治나 地理에 관한 사항 이외에 人物·詩詞 등을 상세하게 첨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전의 행정·경제·군사적인 측면의 항목에 새로이 문화적인 項目이 편입되어 더욱 다양한 주제의 체재를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 경향은 大明一統志 이후 조선의 地誌編纂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 확실하다. 東國輿地勝覽의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題詠’ 항목을 설치한 이유는 詩文이 야말로 物像을 읊조리며 王化를 칭송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徐居正은 同

5) 楊晉景. 1983. “朝鮮時代の 邑誌의 성격과 地理的 인식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3. pp. 8-23.

6) 四庫全書總目提要, 地理類 I 總叙. 蓋用山海經例 太平寰宇記 增以人物 又偶及藝文 ... 元明以後 體例相沿.

7) 樂史撰, 洪亮吉 重校刊, 太平寰宇記 序. 至若地理外 又編入姓氏人物風俗數門 因人物 又詳及官爵及詩詞雜事 遂至祝穆等撰之 方輿勝覽 寧略建置沿革 而人物瑣事 必登載不遺 實皆濫觴于此 此其所短也.

書의 序文에서

“沿革을 먼저 쓴 것은 한 고을의 興廢을 먼저 알지 않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 人物은 과거의 어진이를 기록한 것이요, 名宦은 장래에 잘하기를 권한 것이다. 또 題詠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物像을 읊조리며 王化를 노래하며 칭송함이 실로 詩와 文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⁸⁾

라고 하여 沿革 人物 등과 함께 題詠의 설정 이유와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洪彥弼의 跋文에도 “文을 숭상하여 교화를 실현하는 것은 세상을 돕고 백성을 가르치는 방법이니 어느 것이나 道가 아님이 없다.”⁹⁾ 라고 하여 역시 아름다운 詩文이 文化에 필요한 것임을 강조 하였다.

한편 고래로부터 각 지방의 民謠나 詩歌를 채집하여 조정에 올림은 民情과 風俗을 알아 보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에 燕山君은 “工曹判書 成倪과 行護軍 李德崇 그리고 任士洪 등에게 詩文의 校讐를 명하여 무릇 山川 事蹟의 脫略된 것이나 題詠과 篇章의 지리한 것은 삭제하여 精하고 적당하게 하라”¹⁰⁾ 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또 中宗은 “아름다운 詩文을 새로 가려 기록하지 못한 것이 많으

니 그런 것을 詳考하여 모아서 증보하여 바치라”¹¹⁾ 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서 보듯,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詩文은 初稿本人 東國輿地勝覽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증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편입되고, 기존의 詩文이 다른 관점에서 삭제·가필되면서 점차 添增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지리지에는 모두 1,355편의 詩文이 전한다. 이제 이들 시문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漢城府와 開城府 그리고 八道の 地域別 詩文登載狀況을 정리해 보면 다음 <表 3>과 같다.

다음 표를 보면 전국적인 詩文의 게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타지역에 비하여 慶尙·全羅·忠淸道の 詩文 수가 모두 709편으로 전체의 53%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대량의 詩文이 三南地方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각 지역들이 지닌 지역성 곧 토지의 廣狹이나 戶口의 多寡 즉 인적 자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東國輿地勝覽보다 27年 앞서 간행된 世宗實錄 地理志의 土地面積 및 人口數를 살펴 보면, 土地結數는 平安道·全羅道·慶尙道·忠淸道の 순으로 많고¹²⁾ 人口數는 慶尙道·平安道·忠淸道·全羅道 순

8) 東國輿地勝覽 序文. 先之以沿革者 以一邑興廢 不可不先知也 ... 人物 記已往之賢 名宦 勸將來之善 又終之以題詠 所以吟詠物像 歌頌王化 實不外乎 詩與文也.

9) 新增東國輿地勝覽 跋文. 右文興化 輔世長民之具 何莫非斯道也.

10) 新增東國輿地勝覽 跋文. 命工曹判書臣成倪 行護軍臣李德崇 韓臣士洪 更加讐校 凡山川事蹟之脫略 題詠篇章之繁冗或補或刪 期至精當.

11) 新增東國輿地勝覽 跋文. 詩文之華 未及釐改採錄者 盖多有之 其考覈蒐集以進.

〈表 3〉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漢城府·開城府·道別 登載詩文 篇數

地域名	篇數	地域名	篇數	地域名	篇數
漢城府	85	慶尙道	330	咸鏡道	70
開城府	42	全羅道	189	平安道	61
京畿道	124	黃海道	92		
忠淸道	190	江原道	173		
計					1,355

으로 되어있으므로¹³⁾ 地域勢와 文化活動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平安道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겠는데, 詩文의 등재가 없는 전국 59개 지역 중에서 26개소가 平安道의 所管地域이다. 이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으로 사려된다. 즉 平安道는 타도에 비해 城郭·烽燧의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險阻·要害地가 더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문화적인 면보다는 행정·군사적 대비에 중요성을 두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강조한 나머지 詩文 등 관념적인 내용의 비중은 漢水 이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題詠 항목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서의 卷3에서 卷13에 걸쳐 등재된 漢城府·開城府·京畿道의 詩文 登載狀況을 정리해 보면 〈表 4〉와 같다.

다음의 표에서 볼 때 京畿道의 경우, 전체 37개 지역중에서 果川縣·振威縣·高陽郡·抱川縣·豐德郡을 제외한 32개 지역에 포함 124편의 詩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의 詠嘆對象은 江·山·田野·城·樓·陵 등으로 주로 자연지리적인 현상이나 기념비적인 사적들이며, 한편 작가의 면모를 보면 李穡·李奎報·鄭道傳·徐居正·申叔舟 등 高麗時代와 朝鮮初期의 명망있는 文人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2 詩文의 內容分析

여기에서는 題詠 項目에 등재된 작품 중의 몇 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본 地理志만이 지닌 사상적 가치와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본서에 실린 詩文의 수는 모두 1,355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漢城府에 게재된 85편 중의 6편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고자 한다.

12) 朝鮮 端宗 2年(1454)에 간행된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당시 각 道別 結數는 平安道 311,170, 全羅道 264,268, 慶尙道 261,438, 忠淸道 236,114이며 江原道는 65,908로 가장 적다.

13) 鄭杜熙, 1976. "朝鮮前期 地理志의 編纂(1 2)". 歷史學報 69·70, p. 84에 의하면 世宗 12年(1430)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道別 口數는 慶尙道 173,759, 平安道 105,444, 忠淸道 100,790, 全羅道 94,248 이다.

〈表 4〉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漢城府·開城府·京畿道 詩文登載狀況

地域名	篇數	詠嘆對象	地域名	篇數	詠嘆對象
漢城府	85	江·山·都城	金浦縣	2	江
開城府	42	古宮·山·陵	衿川縣	3	風俗·秋景
廣州牧	3	山川	陽城縣	2	城
驪州牧	29	江·樓·巖	通津縣	11	江城·江山
利川都護府	2	春雨·人傑	楊州牧	4	山河
楊根郡	4	江湖	坡州牧	3	旅軒
砥平縣	5	溪水·山	高陽郡	0	
陰竹縣	1	山城	永平縣	2	田野
陽智縣	3	山村	抱川縣	0	
竹山縣	2	桑田·溪流	積城縣	3	山·城
果川縣	0		交河縣	2	山
水原都護府	3	樓·城	加平縣	1	山
富平都護府	3	風俗·古郡	長湍都護府	2	江
南陽都護府	2	春景	江華都護府	6	海·山·島
仁川都護府	4	海·島	豐德郡	0	
安山郡	4	芙蓉·山	朔寧郡	1	山
安城郡	3	野平	麻田郡	1	田野
振威縣	0		連川縣	4	山·川
陽川縣	4	山嶺·湖	喬桐縣	3	漁村
龍仁縣	2	山野			

먼저 『八詠』가운데서 3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畿甸山河 (鄕道傳)¹⁴⁾

沃饒畿甸千理
기름지고 풍요한 기甸(畿甸) 천리 땅에,
表裏山河百二
안팎의 산하(山河)는 백 두겹일세.
德教得兼形勢
덕과 교화로 땅의 형세까지 겸하니.
歷年可卜千紀
역년(歷年)이 천해는 가오리.

都城宮苑 (權 近)

天作鴻都壯
하늘이 주신 큰 도

읍지 장하기도 한데,

雲橫雉堞開瓠稜
구름 걸친 저 사이에
로 성첩이 열렸네.

金碧鬱崔嵬
금벽(金碧)으로 단
청한 추녀 울울하고
높은데,

劒佩此徘徊
검들고 패물 찬 이
들이 사이에 배회하
누나.

上苑三春樂
상원(上苑)에서 한
봄을 즐기는데,

深宮萬壽杯
깊은 궁중엔 만수
축원 술잔도네.

君王勤政坐
우리 임금 정사에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 漢城府 題詠 「八詠」.

	근면하여,
朝回花影轉樓臺	아침부터 조희보고 돌아오는데 꽃 그림 자 누대로 돌아가누 나.
諸坊碁布 (權 遇)	
錯落閭閻密	얼기설기(錯落) 여 염(閭閻)도 조밀한 데,
縱橫道路分	이리저리 도로가 깔 려있네.
千車萬馬自成群	천수레 일만말(馬) 들 제 스스로 떼지 어.
來往互紛紛	오오가기 어찌 그리 도 분분하나.
市價日中聚	저자에서 저자 장사 온종일 모이는데,
街鐘風裏聞繁華	거리의 종소리 바람 속에 변화한 것 알 려 주네.
一代正修文	이 시대는 문화를 퍼는 때라.
城闕藹祥雲	성궐에 상서 구름 항상 영기누나. ¹⁵⁾

이상에서 본 세 작품의 작가는 모두 고려말과 조선초기의 대학자이자 문장가들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鄭道傳은 恭讓王 4年(1392)에 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왕

조를 개국한 일등공신이었다. 그는 특히 문장과 성리학에 능하여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다. 權近·權遇 역시 모두 圃隱先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太祖의 등극 이후 조정에서의 모든 글월을 찬술하는 등 관변학자로서 총애를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詩文은 한결같이 太祖의 공덕과 漢陽의 천도를 찬양하고, 유교로서 文教를 선양하고 있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

상기 세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畿甸山河>에서는, 漢陽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광활한 땅이 비옥한데다가 아울러 德과 敎化의 기운마저 서려 천년왕조에 地理도 빼어나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都城宮苑>에서는, 하늘의 큰 명을 받아 도읍을 정하고 基業을 열었으니 장하고 웅위하다. 御苑에는 한봄을 희락하며 君王의 善政을 구가하니, 다 聖恩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예찬하고 있다.

<諸坊碁布>에서는, 長安의 못 여염집들이 판위의 바둑처럼 펼쳐 있고 온 거리와 저자를 누비는 千萬馬의 행차는 이때가 바로 태평성세라고 하여 濟世安民의 정경을 기리고 있다. 다음은 漢城府 「十詠」중에서 3편을 선정, 그 내용과 사상적 의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楊花踏雪 (徐居正)¹⁶⁾

北風捲地萬籟響 북풍이 땅을 휩쓸고
만소리 메아리치는데,

15) 飢譯文은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 1971.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pp. 334- 337.에서 轉載.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題詠 「十詠」.

江頭雪片大於掌 강머리의 눈조각 손
바닥보다 더 크고,
茫茫銀界無人蹤 망망한 은세계엔 인
적 볼 수 없는데,
玉山倚空千萬丈 옥산은 공중에 기대
서서 천만길 높았어
라.
我時騎驢帽如屋 내가 이때 나귀 타고
가니 모자가 집같은
데,
銀花眩眼髮豎竹 은꽃은 눈을 현기내
고 머리털 대처럼 곤
두선다.
歸來沽酒青樓飲 돌아 오다 청루(靑
樓)에서 술마시고,
醉傍寒梅訪消息 취한 뒤 매화 등걸 찾
아가 꽃 소식 찾아 보
세.

麻浦泛舟 (成任)

滿懷清狂何處施 가슴 가득 청광(淸
狂)한 마음 어디나
풀어보리.
蘭舟泛泛隨風濤 놀잇배 이리저리 저
어 잔잔한 물결따라
가네.
中流試聽水龍吟 중류에서 용의 읊는
소리 들어 보는데,
隔岸漁笛橫一枝 언덕 저 넘어로 어적
(漁笛) 소리 한 가락
들려 오누나.
孤帆隱映天盡頭 외로히 돛단 배 하늘

저 끝에 가물가물,
五湖烟浪連滄洲 오호(五湖)의 연파
(烟波)가 창주(滄州)
신선있는 곳에 잇따
랐네.
飄然蹤跡何所似 표현한 이 내 종적 어
데다 비길꼬,
沿流無定同沙鷗 흐르는 물따라 정처
없이 가는 몸 갈매기
와도 같은 것이.

濟川翫月 (姜希孟)

夜冷江空萬籟靜 밤은 차고 강도 비어
서 일만 소리 고요한
데,
簾鉤半掛邀素影 가는 발 반만 걸고 흰
달빛(素影) 맞이하네.
紫烟飛散瑤空闊 자색 연기 날아 흩어
지니 하늘은 넓기만
한데,
水輪半出金作餅 얼음 바퀴 반쯤 나오
니, 금으로 떡을 만들
었네.
虛明方寸共清徹 비이고 밝은 이 마음
도 함께 맑고 깨끗하
니,
夜闌鶴側擘華髮 밤 늦도록 학과 함께
흰 털을 흘날리네,
江樓何處鐵笛聲 강 다락 어느 곳에서
쇠젓대 들려오나,
淸興悠悠滿江曲 맑은 흥 유유히 강
구비에 퍼져가네.¹⁷⁾

17) 翻譯文은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1: 同. pp. 337 - 347.에서 轉載.

위 3편의 詩는 한결같이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선비적인 삶의 가치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자의 편모를 보면, 徐居正·姜希孟·成任은 똑같이 본서의 초고본 修撰時에 총책을 맡는 등 官撰事業에 적극 가담하여 많은 공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배계층에 있었던 지식인들로서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온 江河와 自然環境·生活慣習·歲時風俗 등을¹⁸⁾ 詠嘆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楊花踏雪〉에서는, 북풍은 강머리를 세차게 몰아치는데 온 천지는 백설이 덮혀 적막에 싸이고 皚皚한데 玉山은 천길을 치솟아 있다. 돌아가는 길에 겨울 정취가 滿腔하여 妓樓에 들려 梅와 술과 詩를 즐기리라, 라고 하였다.

〈麻浦泛舟〉에서는, 麻浦江에 배를 띄우고 물결따라 즐기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어부의 피리소리에 烟光 또한 가득하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정처없는 이 몸의 처지는 마치 모래판의 갈매기 같구나, 라고 하여 脫俗한 생활의 한 면을 그려 내고 있다.

〈濟川翫月〉에서는, 가을밤 江岸의 빈방에서 흰달을 맞이하니 밝은 기운이 마음속까지 스미는데 강다락에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淸興은 더욱 가득해진다, 라고 쓰고 있다.

요약하여 보면, 이 詩들은 물결·안개·

눈·피리소리·달빛 등의 言語를 구사함으로써 한결같이 名利를 떠나 자연과 親和하며 살아가려는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詩詞의 내용은 단순히 당대 유학자들이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으로 자연에 심취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 차원 높여 王化를 노래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나라의 지리적인 배경과 계절적인 경관을 문학적으로 묘사하여 王朝의 정신적·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본서는 범상한 지리지적 項目에다가 題詠을 가함으로서 금상첨화적인 특징있는 地理志로 成編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역사나 지리적 요소를 詩文의 소재로 삼아 시대상황을 투영함과 동시에 王朝의 政事가 수정처럼 맑아 백성의 교화가 크게 이루어 졌음을 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李珥는 栗谷全書에서 詩와 文의 효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구체화하고 있다.

“詩는 文辭로 표현한 詠嘆이 淫泆하면서도 가장 빼어난 것이다. 아! 말은 소리의 精한 것이요, 文辭는 말의 精한 것이요, 詩는 文辭중에서 빼어난 것이다. 그러니 詩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를 가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經을 서술할 때도 詩를 제일로 두었다. 이로써 世道の 성쇠를 알 수 있고, 國運의 치란

18) 鄭昌秀. 1984. “朝鮮朝의 地理志에 나타난 社會說明的 原理”. 한국사회와 사상. 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 59-62.

을 알 수 있다 ...”¹⁹⁾

즉 詩는 영탄과 감동이 넘쳐나는 언어의 精粹라고 기술하고 따라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며 세태의 편모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文도 일상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道學的인 측면에서 백성을 感動·鑑戒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슬회하고 있다. 이어서 栗谷은 同書에서,

“소위 文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외우는 學習이나 詞章의 학문에 있지 않으며, 교화를 밝혀서 이를 興作시키는데 있는 것이다.”²⁰⁾

라고 하여, 文의 역할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詩·文은 임금이 덕으로서 백성을 教化하고 善行을 권면케 하는데 큰 몫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題詠에 등재된 詩文은 당대의 대가들에 의해서 씌여 졌으며 그 내용은 주로 자연지리적 현상이나 역사적인 事象을 소재로 하여 풍요·질서·아름다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내고 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주요 사상은 왕조의 開創과 善政의 찬양, 애민·애향의식의 고취, 선비적

인 삶의 가치, 자연의 찬미 등을 구가하여 地理志로서의 격조를 한층 드높이고 있다.

4. 結 言

이상에서 고찰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地理志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한 지리적 지식 이외에 각 郡縣의 변천사까지를 기록하는 등 후세의 주요한 情報資料가 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初稿本인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지 50년만인 中宗 26年(1531)에 간행된 官撰地理志의 백미로서 장기간에 걸쳐 수정 증보되어 그 항목의 체재와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다. 특히 각 지방의 項目 후미에 題詠을 설정하여 人文·社會地理志의 진면목을 이루고 있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京都·漢城·開城을 머리에 두고, 다음으로 京畿·忠淸·慶尙·全羅·黃海·江原·咸鏡·平安道の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각 道의 연혁 및 총론을 적은 다음, 州郡縣의 정황에 따라서 20여개 내외의 項目을 설정하였다. 이는 조선조 이전의 地理志가 郡縣 등의沿革만을 위주로 구성·기술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은 項目이 정연하게 體系化되어 있다는 데서 그 가

19) 李 珥, 栗谷先生全書 拾遺 卷3, 雜著 仁物世藁序. 詩者 文辭之詠嘆淫泆而最秀者也 嗚呼 言者 聲之精者也 文辭者 言之精者也 詩者 文辭之秀者也 則詩之所以重於世者 斯可見矣 是故 聖人之述經也 詩居其一 而于以見世道之盛衰 國運之治亂 ...

金銀洙, 1995, 梅月堂詩研究, 博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pp. 122~123.

20) 上 同, 卷 4 雜著 文武策, 其所謂文 不在於記誦之習 詞章之學 而在於明教化 而作興之, 金銀洙, 上揭論文, p. 123.

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을 東國輿地勝覽의 그것과 비교·분석해 보면 총 26개 項目 중에서 동일한 것은 沿革·風俗 등 11개이며, 유사한 명칭으로 變改된 것은 佛宇 등 3개 項目, 그리고 두 항목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山川 등 4개이다. 이들 項目을 주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중심 주제는 行政·軍事·地理로서 이것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 行政을 위한 指針書나 軍事要務를 위한 便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地誌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題詠 項目의 詩文 登載狀況과 이들 작품이 담고 있는 사상에 대하여 고찰해 본 결과 題詠의 詩文 수는 모두 1,355편으로 이 중 下三道 지방에 게재된 것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黃海·咸鏡·平安

道 지방에 게재된 것은 222편에 불과하다. 이에서 文事活動은 지역성과 크게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關西·關北지방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면보다는 행정·군사 등 현실적인 대비책을 더욱 중요시하여 城이나 烽燧 등의 항목을 설치함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題詠의 詠嘆 대상은 주로 城·樓·風俗·人傑·山河 등으로서 자연지리적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읊은 것이며, 王朝의 開創과 善政을 구가함은 물론 백성을 교화하고 선행을 권면함으로써 地理志로서의 격조를 한층 드높였다. 이렇듯 본서는 일반에게 널리 읽히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統治資料 파악을 위하여 성편된 것이었으며 그 문헌적 특성과 가치는 지대한 것이었다.

參考文獻

1. 古典

- 高麗史. 1955 影印本. 서울 :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 大明一統志. 李賢等撰. 全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대학교 奎章閣圖書館 所藏本.
- 新增東國輿地勝覽.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新增東國輿地勝覽. 1958 影印本. 서울 :
- 東國文化社
- 新增東國輿地勝覽. 1967 國譯影印本. 서울 : 民族文化推進黨
- 樂史. 太平寰宇記. 洪亮吉 重校刊. 1975 影印本. 臺北 : 文海出版社.
- 李珣. 栗谷先生全書.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朝鮮王朝實錄. 1968 影印本.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 洪良浩. 北塞記略. 國史編纂委員會 所藏本.
-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1983 影印本.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2. 著書

李樹健. 1989.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서울 : 民音社.

震檀學會. 1980. 韓國史. 서울 : 乙酉文化社.

韓國의 名著. 1970. 서울 : 玄岩社.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理類 1). 서울 : 同研究院.

韓永愚. 1981. 朝鮮前期 史學史研究.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3. 論文

金東洙. 1991. 世宗實錄地理志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西江大學校 大學院.

金銀洙. 1995. 梅月堂詩研究. 博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盧道陽. 1980. "韓國地理學史". 韓國地志總論. 서울 : 國立地理院. pp. 77-107.

楊晉景. 1983. "조선시대 邑誌의 性格과 地理의 인식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3. pp. 8-10.

李成茂. 1982. "韓國의 官撰地理志". 규장각 6. pp. 141-149.

李泰鎮. 1979. "東國輿地勝覽 編纂의 歷史의 性格". 震檀學報 46·77 合集. pp. 252-258.

鄭杜熙. 1976. "朝鮮前期 地理志의 編纂(1·2)". 歷史學報 69·70. pp. 65-127.

鄭昌秀. 1984. "朝鮮朝의 地理志에 나타난 社會說明의 原理". 한국사회와 사상. 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 59-104.

崔昌祚. 1990. "新增東國輿地勝覽解題". 土地研究 제1권 제3호. pp. 156-167.